



1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이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2 할리우드 배우 엘 패닝의 축하를 받고 있는 이정재. 3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부문에 호명되자 무대에 오르기 전 축하를 받고 있다. 4 이정재가 트로피를 쥐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모습. LA(미국) AP·뉴스

‘오징어게임’이 세운 기록

〈공개 28일간〉
시청 16억5045만 시간 1위
53일간 세계 최다 시청 1위
틱톡 오겜영상조회 300억부
각종 시상식 트로피만 35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456번 참가자의 승리!(Player 456 gets the gold)”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자마자 시상식 공식 SNS에 올라온 한 마디다. 지난해 9월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목숨을 건 생존게임에 참가한 ‘456번’은 꼭 1년 만인 13일(한국시간) 마침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다. 올해 2월 28일 아시아권 배우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SAG) 남우배우상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수상 후보로 점쳐졌다. 그러기까지 ‘오징어게임’은 공개 직후부터 신드롬급 인기를 모아왔다. 12일 만인 2021년 9월 30일 넷플릭스 콘텐츠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에서 1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흥행작을 예고했다. 첫 4주(28일) 동안 16억5045만 시청시간을 넘기면서 53일간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프로그램’ 정상에 오른 기록도 1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프랑스 파리 등 세계 곳곳에 ‘오징어게임’ 체험관이 들어섰고, 딱지치기 등 극중 ‘전통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다. 영상 SNS인 틱톡에서는 관련 영상 조회수만 300억부가 넘었다. CNN, 데드라인 등 해외 언론 매체들도 “죽여주는 드라마”, “한국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 등으로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앞다퉈 다뤘다.

세계적 열풍은 해외 시상식에도 반영됐다. 드라마는 지난해 11월 30일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상인 고섬어워즈의 장편시리즈 작품상부터 6관왕에 오른 에미상까지 모두 35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번 참가자’ 오영수는 올해 1월 10일 “극히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통하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8년째 공개열애 이정재-임세령
두 손 꼭 잡고 레드카펫에 올라

“주연상 이정재의 여자친구는 누구냐”
현지매체들 임세령 부회장 집중 조명
칸영화제 등 국제행사 자주 동행 눈길

13일(한국시간) 이정재의 에미상 수상에 가장 큰 박수를 보낸 사람은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이었다. 글로벌 스타인 연인이 연출한 영예로운 장면의 기쁨도 함께 만끽했다.

이날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미상) 시상식에 앞서 이정재와 임 부회장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나란히 레드카펫 위에 섰다. 포토월에서도 현지 취재진의 요청에 다정히 두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했다. 글로벌 무대에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알리며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이정재와 함께 레드카펫에 선 “그의 여자친구”에게 높은 관심을 표했다. 연예전문 매체인 쇼비츠 치트시트는 “‘오징어게임’ 이정재의 데이트 상대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임 부회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이정재와 함께 레드카펫에 선, 화이트 A라인 드레스를 입은 임세령 부회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서 “그는 한국의 대기업을 소유한 권력가이자 최고 재벌 중 한 명이다. 한국 최대 식품회사 중 하나인 대상그룹의 상속녀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이정재와 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공개 교제 중이다. 두 사람은



이정재와 임세령 부회장(왼쪽부터)이 2019년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LACMA 아트+필름 갈라’에 함께 참석한 모습. LA(미국) AP·뉴스

2020년과 202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영화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한 여는 ‘LACMA 아트+필름 갈라’에도 함께 자리하기도 했다. 또 이정재의 첫 연출작 ‘헌트’를 선보인 올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임 부회장은 ‘헌트’ 공식 상영 행사에 참석했지만 레드카펫에 서지는 않았다. 이정재에게만 아웃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도록 연인의 뒤쪽에 앉아 조용히 영화를 관람했다.

한편 임 부회장은 이날 레드카펫에서 크리스찬 디올이 파리에서 공개한 2022~2023 F/W 패션쇼의 런웨이의 마지막을 장식한 드레스로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배우 이정재(왼쪽)와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13일(한국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손을 꼭 맞잡은 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미국) AP·뉴스

이정재 “영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황동혁 “에미상 벽 넘어 다행”

에미상(Emmy Awards)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영화 아카데미상과 비견되면서 ‘TV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TV를 통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1949년 미국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ATAS)가 창설했다. 본상 격인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비롯해 주간(데이타임) 에미상, 국제 에미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3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드라마, 코미디, 미니시리즈·TV 영화, 버라이어티 분야의 작품상, 각본상 및 남녀 주·조연상 등 총 26개 부문에 걸쳐 시상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징어게임’은 미국 드라마로 인정받아 해외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에미상이 아닌 프라임타임 시상식에 포함됐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이정재)
“국가대표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에미상의 벽을 넘었다.”(황동혁)
더할 나위 없었다. ‘오징어게임’의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은 13일(이하 한국시간) 각각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고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다양한 트로피를 들어 올린 두 사람은 “일련의 여행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여유로움도 되찾았다.
이정재와 황 감독을 비롯해 이날 남녀조연상 후보에 오른 오영수·박해수·정호연 등 ‘오징어게임’의 주역들은 시상식 직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감독은 “(해외 시상식)이런 자리에 오면 한국드라마의 국가대표라는 부담이 있었는데, 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주연인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왼쪽부터)이 13일(한국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에서 각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 트로피를 거머쥔 채 활짝 웃고 있다. LA(미국) AP·뉴스

미상의 벽을 넘어 다행”이라며 “‘오징어게임’의 피날레가 마침내 에미상에서 이뤄진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뜻 깊다”고 밝혔다. 이들의 표정에선 74년의 에미상 시상 첫

비영어권 작품으로 거둔 성과라는 자부심도 묻어났다.
이정재는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비영어권 콘텐츠로 어떻게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았느냐’라는 것과 ‘비영어권 연기로 주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고 그 답문을 했다. 그는 “오늘 이 상을 받고 또 기쁨을 받았다. 하지만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한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번 수상을 통해 증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소통하는 방법은 훨씬 많다. 그 방법이 통하기만 한다면 전달하는 과정의 방법은 연출적으로도 연기적으로도 많다. 메시지가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징어게임’이 그런 부분에서 호평 받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황 감독 역시 “(비영어권 작품에)에미상이 문을 열어줘 기회가 생겼고, (주최측이) 이런 기회의 문을 다시 닫지 말고 계속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잘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빈손으로 돌아가면 쓸쓸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트로피를 갖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라며 “성원해주신 국민과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기쁨을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웃었다.
‘오징어게임’은 유력한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돼 왔지만, 아쉽게도 수상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황 감독은 “시상자가 작품상을 호명할 때 발음이 ‘스퀴드’(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석세션’이라 해서 일어날 뻔했다”면서 “시즌2로 다시 와서 작품상을 받고 다 같이 무대 위에 올라갈 기회를 얻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annjoy@donga.com